

# ‘법안 처리 → 거부권’ 쳇바퀴... ‘대결 정치’ 언제까지

### 22대 국회 개원 두달...여야 극한 대치에 법안 처리 건수 ‘0’ ‘방송4법’ 또 거부권 예고...정치·민생 실종에 국민 피로감

22대 국회가 ‘방송 4법’ 등 쟁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쳇바퀴 정국’이 펼쳐지면서 22대 국회는 사실상 두 달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가 완료된 ‘방송 4법’도 채상병 특검법처럼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가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옛세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은 이들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약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 이들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

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며,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는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돌입-야당 단독 처리’ 수순의 소모전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또다시 각 법안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들의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함께 뒤로 밀릴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옛세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이 30일 국회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주제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책연구위원배정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정책연구위원 배정 단위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기준 1급 상당 8명, 2·3급 상당 37명, 4급 상당 32명으로 총 77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47명, 국민의힘이 30명을 배정받았으나,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단 한 명의 정책연구위원조차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교섭단체만이 아니라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의 고유 업무인에도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국회법 조항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단위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원내정당에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위원배정합리화법은 생산적인 정책경쟁으로 국민계 신뢰받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광주시 예산 확보 협력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주시는 다음 달 정책협의를 갖고 현안 사업과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현 시장 위원장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고, 조만간 중앙당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당 지도부에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광주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 광주서 지지 호소

### 전당대회 이번주 호남대회...김병주·김민석·한준호·전현희 방문

오는 8월3일과 4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지지 호소했다.

최고위원들의 광주 방문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분수령인 ‘호남 대전’에서 호남 당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에 참여 가능한 민주당 권리당원 중 약 33.3%가 호남에 있고, 호남지역 대회 이후 관리당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주·김민석·한준호·전현희(기호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30일 광주를 방문해 지지 호소했다.

김병주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공유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론은 오

늘날에도 유효하며 우리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호남 출대가 너무 심하다. 선거운용으로 비판받았던 민생토론회조차도 광주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가 광주 AI(인공지능) 실증밸리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반드시 실행하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호남이 민주당의 변방으로 밀려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 내 호남 정치 분포율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

고회의와 광역단체장의 연석회의 등을 안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후보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이 최대 격전지이며 호남에서의 순위가 수도권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인 한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기치로 내걸고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광주선 철도 지하화·상부 공간 개발을 앞당기고 ‘한국형 아우토반’ 광주·영암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며 “달빛철도를 조기 착공해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완성하고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로 문화도시 광주·전남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현희 후보도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 당원과 시민의 의식은 한 시대를 앞서간다”며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바로 세우고 치유해 준 곳이 광주”라며 지지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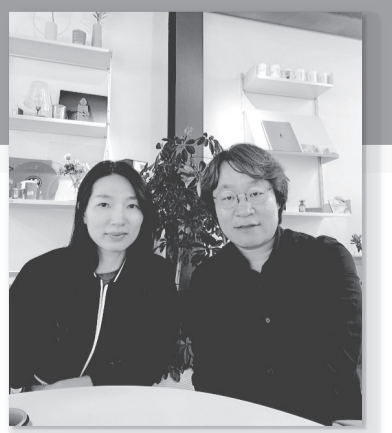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